



“정상은 정복하는 곳 아니라
하나 되는 곳”

에베레스트 정상을 배경으로 선 송귀화씨(왼쪽)와 동료 산악인 김주진씨(사진제공). 아래 사진은 6월 2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의 차담 장면.

[에베레스트 등정한 산악인 송귀화씨]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순간 “그냥 좋았어요”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순간의 기분은 어떨까? 30년 전 산악인 고상돈씨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말로 에베레스트 정상(8848m)을 밟는 순간의 감회를 전했다. 그의 흥분된 목소리는 인간의 도전 정신이 보여주는 위대한 결과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선 산악인. 그것도 59세라는 나이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에 섰던 송귀화씨. 우리나라 여성 대원으로는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 기록을 세운 송씨는 “그냥 좋았다”는 한 마디 뿐이었다.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은이 좋았던 지 날씨가 아주 맑아서 파노라마로 펼쳐진 히말라야의 원경을 30여분 동안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장 155cm에 몸무게는 50kg 정도. 그 여린 몸으로 그 같은 쾌거를 이룬 송씨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말로 표현 하는 데는 지극히 평범했다. 6월 2일 봉선사를 찾은 송씨는 부처님께 3배를 올리고 주지 철안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등 모처럼 푸근한 시간이 흘렀다.

5월 17일 송씨는 히말라야의 티베트쪽 북동쪽 루트로 정

상을 올랐다. ‘프라임 점프 2007 김해’ 원정대의 일원으로 참가한 송씨는 10시간의 사투 끝에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송씨에게 티베트 쪽 루트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티베트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설산 행로이기 때문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초콜릿이라 부르는데 여성적인 신성을 부여한다. 송씨는 한 번도 여성이기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위를 향해 오를 뿐이고 인연이 닿지 않으면 발길을 돌려 다음을 기약하는데 익숙해 있다. 산과 사람도 인연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복자로서의 산악인이 아니라 산에 대한 일체감으로 교류하는 산악인이고 자 스스로 원력을 세웠기 때문이다.

“과워 짤 한 알을 먹고 정상을 향하는 순간 두려움은 없었어요. 실패할 것만 같고 싶었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송씨는 10년 전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 킬리만자로(6196m)를 오르는 길에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을 만났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했다. 산을 오르는 일이 수행인 송씨에게 부처님은 큰 스승이 아닐 수 없다. 철안 스님과 여러 산을 오르며 산사람으로서의 ‘마인드’를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정상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셀파들을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팀의 화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불자로서의 자연스런 마음가짐으로 체질화 된 것이다.

무엇보다 송씨는 셀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들의 산을 경배하는 마음은 참으로 숭고해요. 순간순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의 동차 하나하나가 다 배울 만 하다”고 전한다.

서울시청 공무원(보건직)이었던 송씨는 10년 전 킬리만자로를 오르듯 난 뒤 본격적인 등반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었다. 이후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6959m), 유럽의 엘브루즈(5895m)를 비롯 북미의 매킨리(6194m)를 올랐다. 이번 에베레스트 등정이 5개의 대륙 최고봉을 밟은 기록이 됐고 앞으로 남극의 빈센트스프(4897m)와 오세아니아주의 칼스텐즈(4884m)를 올라 7대륙의 최고봉과 인연을 맺을 각오다.

임연태 기자 mlm1@hanmail.net

7대륙 최고봉 등정이 목표, 이제 2곳 남아

오를 때 보다는 내려 올 때가 더 힘들었다는 송씨. 더러 목격하게 되는 시신들을 스치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관세음보살...” 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고 정진이었다고 회상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열침의 효능 — Health Belt

★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 ▶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인증번호 A83060호
- ▶ 식약청 의료용 전자발열장치: 인증번호 A83061호
- ▶ 전기용품 안전 인증: 번호 H107233-5004호
- ▶ 전자파 장애시험결과 전자파 환경인증
- ▶ 삼성화재 대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 날씨가 더울 수록 배는 더욱 차가워집니다.

“암은 열에 약하며”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건강을 걱정하세요. 건강자키미 금강약돌사입니다. 다년간 건강 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이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C 이상의 고열을 발산시켜 착용시 복부(오장육부) 깊숙히 강력한 복사에너지와 원적외선을 전달하여 등과 같은 열침을 갖는 효과가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 배출과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어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치료에 온열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암 등의 치료에도 온열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오한,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 피부염, 복부지방 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증상,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암예방과 전이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님 불자님들께서 온열복대 착용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

비교내용	금강약돌 온열복대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전기발열온도	95-100°C	70°C 미만
전속외부온도	1시간이내 70-80°C, 1시간후 80°C 유지	50°C 미만
원적외선	중파(4~40)에서 99%, 50°C에서 99%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야데일 파역, 90% 이상을 방사하여 인체의 효능을 높이고 포항되어 있다.	중파(4~40)에서 방사량이 90% 이하이며, 90% 이상을 방사하여 인체의 효능을 높이고 포항되어 있다.
음이온	10~500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일반 10~500개의 음이온을 낸다.

문의전화 : 금강약돌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